

으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하겠다. 따라서 내년에는 낙농인들에 의해 모인 자조금이 다시 낙농인들에게 배가되어 되돌아갈 수 있도록 자조금사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모든 낙농가가 동참하기를 바란다.

낙농인들도 적극 참여하여 자

조금을 조성하는 것뿐 아니라 부족한 점은 채우고 필요한 것은 추진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의 의견을 개진(開陳)하는 등 자조금사업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. 그렇게 함으로써 낙농자조금이 본연의 목적대로 낙농인들을 위해 쓰여질 수 있을 것이다.

낙농자조금사업이 성공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한국낙농육우협회, 낙농인들, 관련 업체 등이 뜻을 같이 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본 사업뿐 아니라 귀하게서 하시는 일이 해가 갈수록 더욱 번창하기를 바란다. ☺

〈필자연락처: 02-504-9434〉

낙농자조금사업은 낙농가들에게 많은 이익을 안겨 주었다



이 홍 구

낙농자조금자문위원(한국유기공협회 부회장)

연간 원유생산량 약 200만톤, 1998년 6월 1일부터 인하하였다고 치면 200만톤의 12분의 7인 117만톤, 5.4% 인하시 톤당 가격은 29,036원이며 1998년에만도 약 340억원, 1999년도 약 580억원의 혜택을 본 셈이고, 이중에서 약 20억원을 각출하는 것이었는데 무임승차자가 있었다는 것은 한번 깊이 반성해 보아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다.

낙농자조금사업은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맞는 분기점에서 국내 낙농산업의 앞날을 한층 밝게 해주는 빛나는 업적으로 후에 기록될 한국 낙농사에 깊이 남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.

낙농자조금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 분야에 뜻이 있는 인사나 학자들 간에 거론이 되어왔고 학술발표장이나 대토론회에서 발표되곤 하였다. 그러나 국내에서 이렇게

빨리 성사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솔직한 표현이 될 것이다.

1997년 말부터 우리나라에 갑자기 불어닥친 IMF한파는 예외 없이 우리 낙농산업 분야에도 암흑의 시대였다. 사료값 폭등, 낙농가 도산, 젓소송아지 도실패기, 수매젓소송아지 생매장, 유가공업체 부도, 분유재고 산적, 우유소비 가두캠페인 주무부장관 앞장 등등 이 모두가 오래 기억될 굵직한 사건들이다. 이러한

고통과 역경들이 낙농자조금사업을 이 땅에 빨리 발붙이게 해준 동기였다고 확신한다.

옥에도 티가 있다고 이 좋은 사업에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았다. 우리나라에도 법으로 자조금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있다. 다만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되어있어 무임승차자가 있을 수 있게 되어있다.

그러나 금년에 시행한 낙농자조금사업은 무임승차자가 있어서는 안 되는 사업이었다. 무임

승차자가 있었다는 것은 홍보가 부족했었다거나 알면서도 동참을 하지 않았다면 참으로 유감스런 일이었다. 왜냐하면, 금년도 시행된 낙농자조금사업으로 하여금 낙농가에게 엄청 많은 이익을 안겨주었기 때문이다.

1997년말 불어닥친 금융대란으로 원화가치가 배 가까이 떨어져 배합사료 값이 40% 이상이 급상승함으로서 정부가 1998년 1월 1일자로 원유가격을 평균 18.4%나 기습인상하였다. 그 후 환율이 하향안정되어가고 사료곡물의 수입이 원활해져 사료가격이 인하되자 1998년 5월초 정부의 우유수급안정대책회의에서 원유가격을 5.4% 인하하도록 방침을 정한바 있었다.

이에 대해 한국낙농우협회에서는 원유가격 인하대신 원유 kg당 5원씩 3개월간 자조금을 조성

하여 우유소비홍보에 나서겠다고 하여 시작이 된 사업이었으니 숫자로 한번 풀이해보면 연간 원유생산량 약 200만톤, 1998년 6월 1일부터 인하하였다고 치면 200만톤의 12분의 7인 117만톤, 5.4% 인하시 톤당 가격은 29,036원(원유 kg당 평균가격 537.7원×5.4%×1000kg)이며 1998년에만도 약 340억원, 1999년도 약 580억원의 혜택을 본 셈이고, 이중에서 약 20억원을 각출하자는 것이었는데 무임승차자가 있었다는 것은 국내 낙농산업의 장래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한번 깊이 반성해 보아야할 대목이 아닌가 싶다.

혹여 유가공업계는 왜 동참하지 않았나 하는 반문이 있을까하여 살펴본바 1998년 7월초에 우유가격을 평균 6.7% 인하하였고, 전례없이 우유성수기(4~5

월)에 16,000톤의 분유재고를 부담해야 했으며 유가공제품의 완전개방으로 재고분유를 생산원가의 절반도 못되는 가격에 팔아야하는 뼈를 깎는 고통을 받은 바 있어 죽히 이해가 되리라고 믿어진다.

또한 자체구조조정 등 어려운 경영여건하에서도 자조금 수급에 적극 앞장을 서주었고 홍보사업의 일환인 "범국민 사랑의 우유나누기"에도 기여이 동참한 점도 좋은 선례로 평가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.

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작된 낙농자조금사업이 다가오는 새천년과 21세기 원년에는 한 농가도 빠지지 않고 전 낙농가가 참여하여 국내 낙농산업의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의 한 축이 되어주기를 기대하는 바이다. ☺

〈필자연락처 : 02-584-3631〉

낙농자조금사업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가시적 효과를 거두었다



정 선 부

낙농자조금자문위원(낙농진흥회 전무)

낙농자조금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유는 완전식품으로 국민건강, 유아건강, 노후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음식이라는 인식을 많은 국민들에서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.

낙농자조금사업 원년에 가시적인 효과를 거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 더 많은 자조금이 모금되고 이를 이용한 우유의 소비촉진 홍보가 더 많이 전개될 것을 바라는 바이다.